

# 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

##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4월 3~4주)

### □ 정책 및 시장 동향

#### ① 베트남 4월 경제 동향

- 베트남, '25년 1분기 경제성장률 6.93%
  -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6.9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 됐으며, 이는 지난 5년동안 (2020~2025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
  - 이번 경제성장률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싱가포르 UOB 등 국제 금융기관이 예측한 7.1~7.7%에는 못미쳤지만, 산업·건설 및 서비스 부문의 회복세가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
  - 향후 성적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
- 미국 달러(USD)·베트남 동화(VND) 환율 사상 최고치 기록
  -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베트남의 달러/동(USD/VND) 환율이 26,000동에 도달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
- 베트남, '25년 1분기 세수 호조
  - 1분기 국제 수입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1~3월 세수는 VND 721.3조 (USD 278.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3% 증가 및 연간 목표치의 36.7% 도달
  - 특히 1분기 개인소득세 징수액은 VND 70조로 지난 '09~'11년 3년간 개인소득세 징수액과 거의 맞먹고, '16년 전체보다 많은 수준
  - 또한 주택·토지세 수입은 VND 114.5조로 연간 목표치의 39% 도달
- 베트남 정부, 민간경제를 향후 5년간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고, 제14차 당대회 결의안 초안에 명시
  - 팜 민 쩌 총리는 에너지와 디지털, 철도, 방산 부문 등 국가적 핵심 인프라 사업에 민간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 ②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

- 베트남, 제8차 국가전력계획(PDP8) 조정안 확정
  - 베트남은 '30년까지 경제 고도성장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 생산량(수입 포함)을 현재의 2배까지 확대할 계획
  - 조정계획은 '26~'3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최소 10% 이상, '31~'50년 연평균 7.5%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30년까지 전력 생산·수입량은 5,604억~6,246억kWh, '50년까지 1조3,601억~1조 5,111억kWh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조정계획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새로 포함되었으며, 닌투언성 원전 1·2호기(4~6.4GW급)는 '30~'35년 가동 예정
-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
  - 베트남을 공식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부이 탄 선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 및 업무 만찬을 갖고, 양국 관계발전 방안 및 북한문제 등 지역·국제 정세 논의
  - 양국 외교장관은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게 원전, 고속철도 등 전략적·미래지향적 분야의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베트남, 항공기 수입 규제 대폭 완화
  - 베트남이 대외관계 증진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항공기 수입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현재보다 더 많은 기종이 수입 될 것으로 예상
  - 항공기 수입에 관한 개정 시행령에 따라 미국연방항공청(FAA), 유럽항공안전청(EASA), 베트남 건설부 또는 브라질 민간항공청(ANAC)과 캐나다교통부민항국(TCCA), 러시아연방항공운송국(FAAT), 중국민용항공국(CAAC) 중 1곳에서 인증을 취득했다면 수입 가능 (기존엔 FAA와 EASA, 베트남 교통당국 3곳만 가능)

### 3 베트남 기타 동향

- 빈그룹, 견저해양도시 착공
  - 빈그룹은 호치민시 견저현 Long Hoa xa와 Can Thanh thi tran 일대 해안매립지를 포함해 서울 여의도 10배 크기인 2,870ha 부지에 해안관광시설 리조트, 스마트시티, 하이테크 서비스, 주거 및 호텔단지 등 복합도시 건설 추진
  - 호치민시 중심부로부터 남동쪽 50km 거리의 견저현은 면적 700km<sup>2</sup>, 거주인구 8만명의 지역으로 특히 관내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해 있을뿐만 아니라 해안선이 13km에 달하는 유네스코 맹그로브 생물권보전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생태관광지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평가되며,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해 자유무역구역, 물류, 해양생태관광 및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
  - 빈그룹은 호치민 도심과 견저현간 연결성 향상을 위해 총 연장 48.5km의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이밖에도 지역에 예정된 주요사업으로 USD 60억 규모 견저국제환적항 등이 있음
- 베트남, 역대 최대 해저광케이블 ADC 연결구간 개통
  - 중부 빈딘성 꾸년에 위치한 육양국(landing station)을 설치하며 아시아 최대규모의 해저 광케이블인 아시아다이렉트케이블(Asia Direct Cable, ADC)과 베트남 연결구간을 정식 개통
  - ADC는 싱가포르와 홍콩, 일본 등 아시아 7개국으로 분기되는 9,800km 해저 광케이블로, 베트남 연결 구간 전송 용량은 50Tbps(기존 가용 대역폭의 125%)
  - 총 사업비 USD 2.9억이 투입된 공동프로젝트로, 베트남 비엠텔을 비롯해, 일본 소프트뱅크, 차이나텔레콤글로벌,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싱가포르 싱텔, 인도 타타커뮤니케이션, 태국 내셔널 텔레콤, 필리핀 PLDT 등 아시아 주요 9개 통신사가 참여
  - 베트남은 최근 디지털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30년까지 총 15개 해저 광케이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

- 호치민 편선넛공항, 제3여객터미널 공식 개장
  - '22년 8월 착공된 편선넛공항 제3여객터미널은 연간 2,0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베트남 최대 규모 국내선 여객터미널로 완공 예정일을 2개월 앞당겨 4월 19일 준공 및 개장식을 개최
  - 통일절 연휴(4월30일~5월4일) 직후 국내선 운항편의 80%를 차지하는 베트남항공과 비엣젯항공의 이전이 완료되면 본격 운영 예정
- 호치민-동나이성 연결 년짜대교 4월 말 개통 예정
  - 금호건설이 단독시공한 년짜대교는 호치민시 동북부 편반지역과 남동부 동나이성 년짜공단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베트남 교통부 산하 미투언 사업관리단(PMU)이 발주
  - '22년 9월 착공된 년짜대교는 당초 오는 8월 준공예정이었으나 베트남 통일절 50주년 기념일에 맞춰 준공을 앞당겨 달라는 발주처 요청에 따라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조기 완공
- 퀄컴(Qualcomm), 베트남에 대규모 AI R&D센터 건립 추진
  - 미국 IT·팹리스기업 퀄컴의 기술담당 수석 부사장은 응웬 쯔 응 부총리 접견 자리에서 베트남에 자사 세계 3번째 규모 AI R&D센터 투자 계획을 밝힘
  -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시 대표사무소 1곳씩을 두고 있는 퀄컴은 이달 초 빈그룹의 인공지능(AI) 자회사 Movian AI의 지분 65%를 인수하며 베트남 AI 산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바 있음
- 푸꾸옥 공항 확장 승인
  - 베트남은 오는 '27년 푸꾸옥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푸꾸옥 공항에 대한 대대적인 확장사업 추진
  - 건설부가 최근 승인한 '21~'30년 푸꾸옥국제공항 일반개발계획에 따르면, 오는 '30년까지 연간 여객 1,000만명 및 화물 2.5만톤, '50년까지 1,800만명, 5만톤 규모의 확장사업 진행 예정

## □ 일반 프로젝트 동향

### ① (베트남) 동나이성, 깃라이 대교 건설 추진

####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 (사 업 비) USD 7.7억 (VND 20조)
- (사업내용) 총 연장 11.4km, 왕복 8차로
- (추진현황) '17. 정부 건설 승인 / '25.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 '30년 이전 개통 목표

- (주요사항) 동나이성과 호치민시는 깃라이 대교 건설 후보지를 낙점하고 조속한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에 돌입
  - PPP방식(BOT)으로 추진 예정
  - 깃라이 대교는 호치민 투득시와 동나이성 년짜현을 잇는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향후 롱탄 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해 교통 인프라 강화 목적

### ② (베트남) 하노이-꽝닌 고속철도 건설 추진

####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베트남 건설부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총 연장 121km, 설계속도 300km/h
- (추진현황) 미정

- (주요사항) 빈그룹은 PPP방식(BOO)의 하노이-꽝닌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정부 당국에 제안
  - 현재 건설 중인 엔비엔-파라이-하롱-까이란 철도 노선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할지, 시속 300km의 고속철도 노선을 신설할지 미정
  - 완공 시 지역간 이동시간을 30분 안팎으로 대폭 줄여 하노이와 꽝닌성간 관광 및 투자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